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7일 목요일 음 2월 4일 (1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20%
0%	성산	20%
0%	고산	20%
0%	서귀포	20%

해돋이 07:06	달뜨기 09:07
해지기 18:28	달지기 21:39
만조 00:30	간조 06:59
12:52	19:25

주간예보

내일	흐리고 비	8/11°C
모레	흐리고 비	10/13°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독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中, 한국·일본에 마스크 수출 채비

수출 사업 승인은 ‘아직’

중국에서 일부 마스크 제조업체가 한국과 일본에 마스크 수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중국의 코로나19는 거의 변곡점에 이르렀지만, 이웃 나라에서는 상황이 나빠져 마스크 수요가 늘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저장룽타이의료 기술의 천롄제 총경리는 일본과 한국 고객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생산라인 4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문의가 많이 왔으며 며칠 내로 생산이 시작되면 주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체 서우위터는 의료용품 자회사가 마스크 수출 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한국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마스크 생산과 수입을 늘리려



광저우의 한 마스크 공장.

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수입하기를 원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지적했다. 한국은 마스크 대란 속에 이날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의 한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사의 수출 사업이 중단됐으며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수출 사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센터 텐윈 소장은 중국이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물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요일론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9년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17.1℃로 1961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나타내며 폭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시숲 조성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작성한 도시숲이 시민에게 주는 혜택의 내용을 보면 도시의 온도저감 효과,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제거, 수계의 조절과 수질향상 등

지속가능한 제주 위한 도시숲 조성 정책 방향

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도시숲에서 생산된 목재는 연료, 열매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름다운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을 제공하고 에너지 사용절감,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긍정적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10.07㎡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38㎡, 부산 12.49㎡, 대구 11.52㎡, 인천 8.23㎡, 광주 11.27㎡, 대전 10.46㎡, 울산 17.87㎡, 세종 24.22㎡, 제주 15.72㎡로 세계보건기구인 WHO 권장 최소기준인 9㎡ 보다는 다소 높지만 뉴욕(23㎡/인)이나 런던(27㎡/인) 등 세계 주요도시 수준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 기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산과

오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주로 살아가는 생활환경 주변의 녹지인 생활권 도시숲 조성은 2016년말 기준 총 8만7668ha 중 700ha로 비율이 단 0.8%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현실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민원을 이유로 일도지구의 도시숲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도민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숲 확대에 대한 행정의 대응과 관심이 부족하다.

다행히 행정당국은 올해 약 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숲과 명상숲 등 생활권 내 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개설사업비 등의 예산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작은 예산 편성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포럼, 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제주지역 도시숲 조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지역에 울창한 산림과 오름 등 수많은 녹지 환경이 있지만 실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숲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즉, 우리가 거주하는 집 옆에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도시숲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예산 증액 등의 노력과 함께 주민 참여도 중요하다.

2020년은 제주의 도시숲 확대의 기반을 만드는 민관협력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문화누리카드로 행복한 문화생활 누리세요

코로나19, 다함께 극복합시다



신동우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의 문화향유의 정도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문화생활의 향유가 경제적 풍요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산물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속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는 더욱 차별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문화생활의 기회를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청인 개인당 연 9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번 발급받은 금액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급 신청인이 많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만 지참해(본인신청 시)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www.mnuri.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혜택을 받아 올해 재충전하는 경우는 전화(1544-3412)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특성상 지원 금액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사용 가능한 분야로는 도서, 공연 등의 문화 분야나 항공, 렌터카, 여행사 및 관광지 등 관광분야, 스포츠관광 체육시설 이용 등 체육 분야이다.

반면 사용 불가능한 분야는 보드게임·플라워 카페, 스포츠브랜드, 이·미용실, 목욕탕이나 찜질방,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생활 소모품, 패션잡화나 액세서리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없다.



권정민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200명을 넘어섰으며 이와 관련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부는 국가 위기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치사율은 약 2% 정도로 사스(10%)나 메르스(34%)보다는 낮다. 그러나 잠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과 주기적인 청사

소독 및 코로나 지정 전담구급차 운영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끝없이 변이를 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법이 따로 없다.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건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손을 자주 씻는다. 둘째, 기침은 옷 소매로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이 필요하다. 셋째, 마스크를 착용한다. 넷째,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전화를 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당 지역 방문사실을 알린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이다. 감염자는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무엇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위 예방법을 잘 지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boraflower.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꽃보라화원

농장

☎ 746-0014, H-P 010-3693-5563

제주시 신광로8길 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